

대중문화

2019년 1학기 교재 가이드



교재 추천 원클릭 서비스

강의 정보를 남기시면 알맞은 교재를 찾아 전화와 메일을 드리고 책과 PPT 파일을 발송합니다. **서비스 신청하기**



반값교재 양심교재 판매

정가의 절반입니다. 내용은 책과 똑같습니다. 표지 대신 투명 비닐 커버고 DIY 스프링 제본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스프링을 끼웁니다. **킴복스 교재 공동구매 전용몰(7474001.com)**에서만 판매합니다.



대학 강의 전용 교재 보급판 출시, 굿클래스 시리즈

본문 내용과 판형은 변동 없습니다. 킴복스 교재를 사용하는 저자와 교강사를 위해 만든 저자 할인가에 준한 저렴한 특별판입니다. **킴복스 교재 공동구매 전용몰(7474001.com)**에서만 판매합니다.



강의를 풍부하게 만드는 강의용 **PPT** 무료 제공

교재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강의자에게 제일 먼저 제공합니다.

PPT 목록 확인 **PPT 신청**



모든 교재 무료 검토

commbooks.com에서 본문 전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캐시를 신청해 주세요. **회원가입 바로가기** **열람 캐시 신청하기**



검토 교재 신청

한 과목당 한 권의 검토 교재를 증정합니다.

검토 교재 신청하기

<http://commbooks.com/굿클래스/>에서

위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세요.

문의 전정욱 주간 02-3700-1273,

jwjuhn@commbooks.com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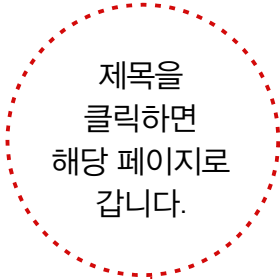
신간 교재 5

과목별 교재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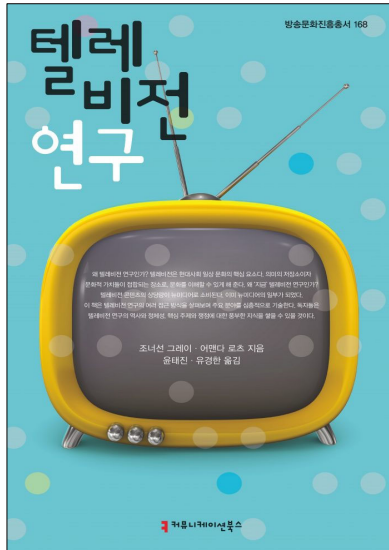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17

미디어 기호학 · 담론 19

총서 교재 22



신간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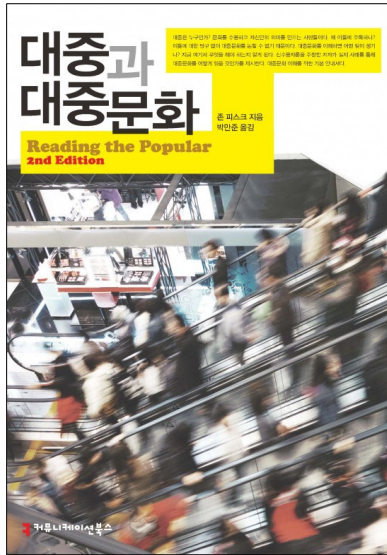


텔레비전 연구

시청 패턴이 바뀌고 화면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져도 텔레비전은 비즈니스의 대상, 문화 제공자, 광범한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 책은 텔레비전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길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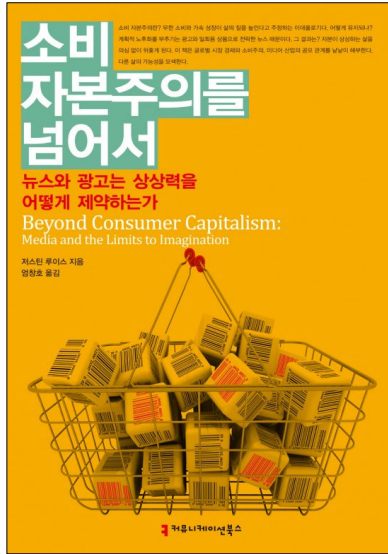
- 1960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전통의 텔레비전 연구의 성장 과정 추적
- PR의 개념과 역사, 이론과 실무, 특수 PR까지 아우르는 4부 26장의 구성
- 텔레비전의 사회 문화적, 기술 산업적, 역사적 맥락 구체적 제시
- 프로그램, 수용자, 제도 연구의 학술적 기원과 핵심적 연구 업적 소개
- 문화연구 교재로 사용 가능

조너선 그레이·어맨다 로츠, 사륙관, 316쪽, 25,000원, 2017-06



대중과 대중문화

- 존 피스크의 Reading the Popular(2nd ed, New York: Routledge, 2011) 번역
 - 피스크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헨리 쟁킨스의 설명 추가
 - 대중과 대중문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론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제시
 -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이 대중문화를 만들어 내는 현장과 그 텍스트에 대한 분석
- 존 피스크, 박만준, 신국판, 444쪽, 28000원, 2016-04



소비 자본주의를 넘어서: 뉴스와 광고는 상상력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한글

소비와 속도라는 이데올로기

소비 자본주의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소비는 곧 미덕이며, 가속 성장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소비하라”고 연일 외치는 광고는 소비 자체를 신성시하고, 다양성 대신 수익성을 좇는 뉴스는 속도 경쟁에 혈안이다. 그 결과, 다른 삶을 상상할 여지와 여유는 갈수록 줄어든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이 책은 소비 자본주의가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풍부한 사례 제시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그 기저에도 사린 시장 경제와 미디어 산업의 공모관계를 낱알이 해부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될 책이다.

Beyond Consumer Capitalism: Media and the Limits to Imagination

저스틴 루이스, 엄창호, 신국판, 296쪽, 23000원, 2016-02

“저스틴 루이스는 유려한 문장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만연한 소비 자본주의와 점점 위세를 더해 가는 신자유주의를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과 미디어가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를 파헤친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제임스 커런(James Curran),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

“저스틴 루이스가 『소비 자본주의를 넘어서』 라는 걸작을 냈다. 루이스는 지속가능하고 인간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현대 자본주의의 결정적 한계를 알려 주고, 상업 미디어가 지나간 자리마다 썩은 시체의 악취가 진동한다는 점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지적한다. 강력한 비판과 함께 출구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풍부한 문헌 검토가 돋보이는 『소비 자본주의를 넘어서』 를 나는 강의 교재로 쓰려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젊은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맥체스니(Robert W. McChesney), 일리노이대학교

“저스틴 루이스는 현대 문화정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날카로운 감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책은 정치경제학, 텍스트 분석, 참여 관찰의 자연스러운 조화 속에서 신랄하

면서도 우아하게 우리의 지나친 소비를 경고한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현대의 고전이다.
토비 밀러(Toby Miller),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캠퍼스



미디어스포츠 사회학(2016년 개정판)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다. 하지만 스포츠에 무효는 없다. 보편적 시청권은 어느 때보다 더 교묘하게 위협받고 있다.

- 미디어스포츠의 새로운 양식에 대한 탐색
- 14개의 핵심 질문에 답
-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달라진 미디어스포츠의 전경을 그린 개정판
- 스포츠, 인간·사회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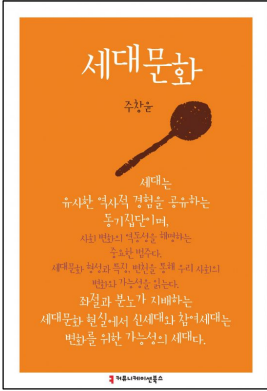
김원제, 신국판, 376쪽, 25000원, 2016-02



로맨스 웹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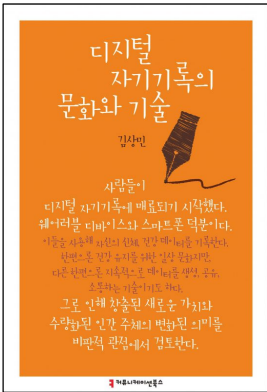
웹소설은 디지털 시대 대중의 요구에 힘입어 창작되고 소비되는 대표적인 대중문학이다. 이제 웹소설은 웹툰을 이어 웹 세상을 지배하는 콘텐츠 중 하나가 됐다. 영상이 흘러넘치는 웹에서, 문자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가? 웹소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웹소설이 어떤 형식으로 최적화되고 있는지, 또 웹소설을 쓰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는 학문을 하는 사람과 이제 막 소설 쓰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로맨스 위주로 재편되는 웹기반 소설의 판도 변화와 웹소설의 의미와 이념, 구성 원리, 특성, 생존 조건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웹소설 스낵 컬처의 의미를 살펴보고 웹소설의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전망해 본다.

김경애, 124쪽, 사륙판, 9800원, 2017-11



세대문화 반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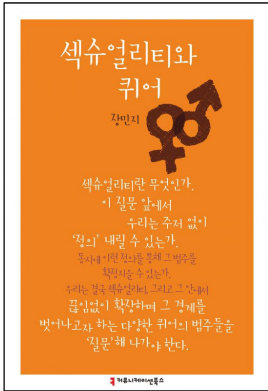
세대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기집단이며, 사회 변화의 역동성을 해명하는 중요한 범주다. 세대문화 형성과 특징, 변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가능성을 읽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대와 계급이 수렴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세대 내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좌절과 분노가 지배하는 세대문화 현실에서 신세대와 참여세대의 역사적 기억과 경험에 주목한다. 이들은 변화를 위한 가능성의 세대다
주창윤, 118쪽, 사륙판, 9800원, 2016-11



디지털 자기기록의 문화와 기술 반값

사람들이 디지털 자기기록 활동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센서가 장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덕분에. 이들을 사용해 자신의 신체,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디지털 자기기록은 한편으론 건강 유지를 위한 일상 문화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공유, 소통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 책은 디지털 자기기록의 문화와 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와 수량화된 인간 주체의 변화된 의미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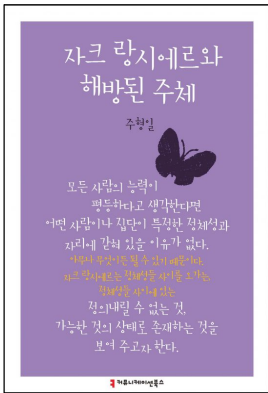
김상민, 106쪽, 사륙판, 9800원, 2016-10



섹슈얼리티와 퀴어 반값

퀴어축제가 열리고, 유명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선언한다. 그런가 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브로맨스가 유행이다. 섹슈얼리티 논쟁의 화두들이다. 그런데 정작 섹슈얼리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확고한 ‘정의’를 내리길 주저한다. 동시에 이런 정의를 통해 그 범주를 확정지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책은 섹슈얼리티,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확장하며 그 경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퀴어의 범주들을 ‘질문’해 나간다.

장민지, 사륙판, 104쪽, 9800원, 20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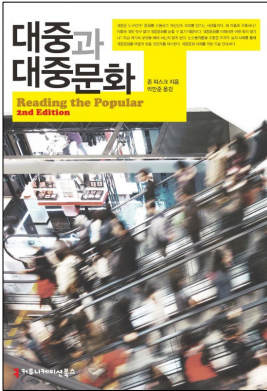
자크 랑시에르와 해방된 주체 반값

모든 사람의 능력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정체성과 자리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 아무나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크 랑시에르는 정체성들 사이를 오가는, 정체성들 사이에 있는 정의내릴 수 없는 것, 가능한 것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마르크시스트로 출발해 그를 비판적으로 극복한 랑시에르의 사상적 궤적을 따라가 본다. 분할된 구조의 틀 안에 갇힌 개인이 아닌, 저무한대의 자유를 향해 탈피한 나비와 같은 해방된 주체는 어떤 모습일까.

주형일, 사륙판, 104쪽, 9800원, 2016-10

과목별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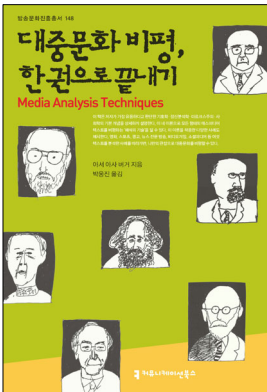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대중과 대중문화

대중은 누구인가?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왜 이들에 주목하나? 이들에 대한 탐구 없이 대중 문화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를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신수용자론을 주창한 저자가 실제 사례를 통해 대중문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제시한다. 대중문화 이해를 위한 기본 안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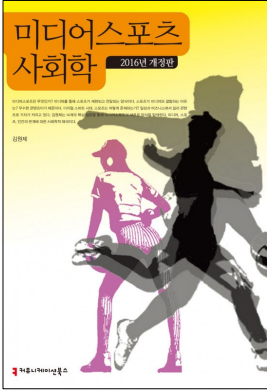
존 피스크, 박만준, 444쪽, 신국판, 28000, 2016-04



대중문화 비평, 한 권으로 끝내기 보급판

대중문화 비평의 목적이 뭔가? 분석하는 시각이 창의력을 키운다. 이 책이 다루는 비평의 테크닉은 무엇인가? 기호학,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 분석, 사회학이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핵심 개념을 쉽게 설명한 후 다양한 텍스트를 이론과 사례로 풀어낸다. 이 책은 아서 버거가 쓴 간결한 대중문화 비평 안내서다. 학생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비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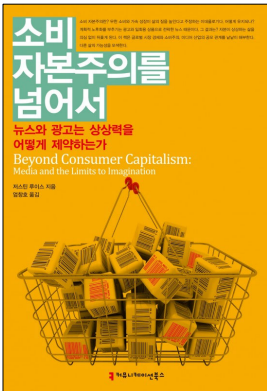
아서 아사 버거, 박웅진, 신국판, 448쪽, 23,000원, 2015-02



미디어스포츠 사회학(2016년 개정판)

미디어스포츠란 무엇인가?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가 재현되고 전달되는 양식이다. 스포츠가 미디어와 결합하는 이유는? 우수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스마트 시대, 스포츠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킬러 콘텐츠로 가치가 커지고 있다. 김원제는 14개의 핵심 질문을 통해 미디어스포츠의 새로운 양식을 탐색한다. 미디어, 스포츠,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이다.

김원제, 신국판, 376쪽, 25000원, 2016-02



소비 자본주의를 넘어서: 뉴스와 광고는

상상력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반값

소비 자본주의란? 무한 소비와 가속 성장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다. 어떻게 유지되나? 계획적 노후화를 부추기는 광고와 일회용 상품으로 전략한 뉴스 때문이다. 그 결과는? 자본이 상상하는 삶을 의심 없이 뒤쫓게 된다. 이 책은 글로벌 시장 경제와 소비주의, 미디어 산업의 공모 관계를 낱알이 해부한다.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저스틴 루이스, 엄창호, 신국판, 296쪽, 23000원, 2016-02

미디어 기호학 · 담론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영화 · 가요 · TV 드라마 · 애니메이션 · 광고 · 스포츠 · 패션에서 트랜스젠더와 ‘몸’까지, 현대사회에서 전개되는 각종의 대중문화 장르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와 영향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한다. 각각의 대중문화 장르가 내포하고 있는 서사구조와 의미구조를 밝혀내고, 그러한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발견, 그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백선기, 신국판, 518쪽, 29,000원, 2004-02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신문보도, 대중가요, 만화까지 다양한 미디어 장르의 기호학적 분석. 각종 커뮤니케이션 작용과 미디어 생산물의 의미 파악에 어떻게 기호학의 개념들과 분석 방법들이 적용되는가를 밝히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백선기, 신국판, 352쪽, 28,000원, 2007-02



보도 비평,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TV 방송 보도를 다양한 기호학의 개념과 분석 방법으로 해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중국의 동북공정 발언 등 주요 사건과 사안에 대한 보도 비평을 담았다. 특히 필자가 새롭게 시도한 기호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담론 구조 분석 방법의 효용성은 주목할 만하다.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숨어 있는 인식과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백선기, 신국판, 229쪽, 23,000원, 2010-02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1

영화 분석에 기호학 개념과 구조 유형들을 적용, 새로운 기호학적 분석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 저작이다. 기존의 다양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최근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킨 영화와 영화 포스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다른 미디어 영역에서 시도하였던 영상 분석 방법들을 영화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백선기, 신국판, 368쪽, 19,000원, 2007-02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2

영화 분석에 보다 적절한 기호학 개념과 구조 유형들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호학적 분석 방법들을 제시한 책. 기존의 다양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최근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킨 영화와 영화 포스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다른 미디어 영역에서 시도하였던 영상 분석 방법들을 영화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백선기, 신국판, 212쪽, 23,000원, 2010-02

총서교재

총서 교재는
강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10가지로 콤팩트하게 정리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저널리즘의
개념, 이론, 역사를 망라합니다.
주교재, 부교재, 읽기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해
강의를 알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테스크의 정치학

이 책은 그로테스크의 대표적 유형들이 탄생한 계보와, 그로테스크에 관한 논의들을 평가한다. 축제성, 숭고성, 비정상성으로 그로테스크를 해명하는 기존 담론들은 통약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사회 변동기 아노미를 경험하는 대중이 자신의 체험을 예외 상태에 투사하는 경향에 착목해 통합을 시도한다. 괴물과 근원적 세계라는 예술 범주를 통하여 법·제도와 대결하는 군중 정치학의 역관계가 텍스트에 반영된다. 그로테스크는 군중의 능동적 태도나 군중에 내몰린 개인의 수동적 태도를 반영하거나, 양자의 교착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그로테스크의 정치학은 잔혹함이나 불결함으로부터 유머를 추출하는 작금의 한국 문화정치 상황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창우, 사륙판, 126쪽, 9800원, 2015-05

대중문화비평이 넘쳐난다. 이러한 비평은 문화적인 폭을 넓혀주고 문화담론을 풍성하게 하는가.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비평이라는 이름의 허세를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 대중문화비평가로 활동하려는 수용자는 스스로 비평가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힘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중문화비평가 되고 싶은 사람, 문화이론과 관련된 수업 들은 사람, 단순히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대중문화 해석에 필요한 이론뿐 아니라 비평가의 자세와 관점, 실제적인 글쓰기 연습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만의 눈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비평이론과 관련된 수업 들은 사람, 단순히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대중문화 비평의 관점과 기술

김정은



책 읽는 내 인생의 필수

대중문화 비평의 관점과 기술

대중문화 비평이 넘쳐난다. 이러한 비평은 문화적 안목을 높여 주고 문화 담론을 풍성하게 하는가.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비평이라는 이름의 허세를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 대중문화 비평가를 불신하는 수용자는 스스로 비평가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힘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대중문화 비평가가 되고 싶은 사람, 문화이론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 사람, 단순히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대중문화 해석에 필요한 이론뿐 아니라 비평가의 자세와 관점, 실제적인 글쓰기 연습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만의 눈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김정은, 사륙판, 132쪽, 9800원, 2015-11

최근 대중문화는 위에서 대중문화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자칫 미디어와 강하게 연결되어왔다. 그리고 현재는 대중문화 자체를 독립적으로 의의치 않고 문화연구, 문화콘텐츠, 기호학 및 담론연구 등과 연계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독립해서 논의할 가치를 지닌다. 여전히 현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핵심 논제를 다시 끌어내고, 기존 개념들과 새로운 개념들을 융합해 현재의 문화현상을 조명하고 의미를 음미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문화론

백선기



계명대학교에서

대중문화론

최근 대중문화 논의에서 대중문화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논자들에게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대중문화 자체를 독립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며 문화연구, 문화콘텐츠, 기호학 및 담론연구 등과 연계시켜 논의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독립해서 논의할 가치를 지니는데, 여전히 현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논의가 약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핵심 논제들을 다시 끌어내고, 기존 개념들과 새로운 개념들을 융합해 현재의 문화현상을 조명하고 의미를 음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선기, 사륙판, 124쪽, 9800원, 2015-11

한류의 주역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를 규율하는 법이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이다. 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인 관계여부와 어떤 법적 취급을 받는가? 연습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아역배우는 심야 시간에 촬영할 수 있는가? 장자연 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 책은 공정한 계약과 공정한 거래 질서, 공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것이 이 법률인본이다.

비즈니스에이전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

황승흠



비즈니스에이전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

한류의 주역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를 규율하는 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은 어떤 관계여야 하고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가? 연습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아역배우는 심야 시간에 촬영할 수 있는가? 장자연 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 책은 공정한 계약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키라고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통해서 안정된 영업 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이유다.

황승흠, 사륙판, 134쪽, 9800원, 2015-05

디지털 세대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여전히 호기심의 대상이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소통하며 이미지로 신념과 의견을 대의한다. 이러한 디지털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새로운 문화의 관심과 호기심을 끄는 데 충분했다.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디지털 세대의 문화 생산·소비 방식은 최근 들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의 필수 조건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디지털 세대가 경험하는 불안한 미래는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이 행복 한 삶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 깨닫게 했다. 이 책은 디지털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다.

이종임의 저서
디지털 세대·문화·정체성
 이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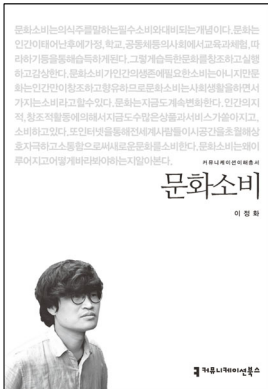


책 읽는 내 인생의 필수

디지털 세대·문화·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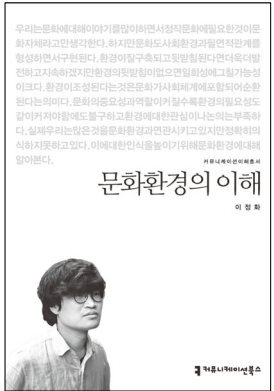
디지털 세대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여전히 호기심의 대상이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소통하며 이미지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다. 이러한 디지털 세대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새로움'은 사회의 관심을 끄는 데 충분했다.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디지털 세대의 문화 생산·소비 방식은 최근 들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의 필수 조건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디지털 세대가 경험하는 불안한 미래는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이 행복한 삶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 깨닫게 했다. 이 책은 디지털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다.

이종임, 사륙판, 108쪽, 9800원, 2015-05



문화소비

문화소비는 의식주를 말하는 필수소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문화는 인간이 태어난 후에 가정, 학교, 공동체 등의 사회에서 교육과 체험, 따라 하기 등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그렇게 습득한 문화를 창조하고 실행하고 감상한다. 문화소비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소비는 아니지만 문화는 인간만이 창조하고 향유하므로 문화소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소비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지금도 계속 변화한다. 인간의 지적, 창조적 활동에 의해서 지금도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소비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상호 자극하고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소비한다. 문화소비는 왜 이루어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본다. 이정화, 사륙판, 120쪽, 9800원, 2015-05



문화환경의 이해

우리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문화에 필요한 것이 문화 자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도 사회 환경과 필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구현된다. 환경이 잘 구축되고 뒷받침된다면 더욱더 발전하고 지속하겠지만 환경의 뒷받침이 없으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문화가 사회 체계에 포함되어 순환된다는 의미다. 문화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질수록 환경의 필요성도 같이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는 부족하다. 실제 우리는 많은 것을 문화환경과 연관시키고 있지만 정확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이정화, 사륙판, 114쪽, 9800원, 2015-05



미디어 기호학 반값

미디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언어, 부호, 표식, 사진, 영상 등 다양한 기호들을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그동안의 미디어 연구들은 미디어의 영향이나 효과에 초점을 맞추거나 미디어 수용자들의 인지나 인식에 중점을 두어 왔다. 미디어의 영향이나 수용자의 인식에 초점을 두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영향을 야기하는 미디어 콘텐츠다. 따라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호 체계에 대한 관심이 우선해야 한다. 미디어학과 기호학이 서로 융합해 새로운 영역인 미디어 기호학을 생성함으로써 미디어 콘텐츠의 의미 체계를 발견하여 다양한 수준과 위계의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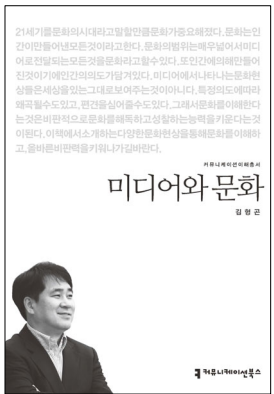
백선기, 사륙판, 110쪽, 9800원, 2015-05



미디어 담론

담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담론은 대부분 특정 이슈나 의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담론은 일정한 구조를 지녀야 하며, 특정 이슈나 의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이나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수정 견해들이 제시되어 경쟁, 갈등, 대립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사회 전체가 갈등 해결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담론의 생성, 전개, 확산, 정점, 해결 또는 소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기구가 바로 미디어다. 미디어 담론에 관심이 높은 이유다.

백선기, 사륙판, 112쪽, 9800원, 2015-05



미디어와 문화 반값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문화가 중요해졌다.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문화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것이 다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인간의 의도가 담겨 있다.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특정 의도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고, 편견을 심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비판적으로 문화를 해독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 현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비판력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

김형곤, 사륙판, 124쪽, 9800원, 2015-11

다른 과목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광고

공간 커뮤니케이션

P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경제, 경영, 정책

미디어론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방송, 영상

연구방법론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저널리즘

소통, 스피치, 글쓰기, 토론

미디어교육

한국어

대중문화

가이드를 다 보았는데도 마음에 드는 교재가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리딩패킷 교재'를 이용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나만의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딩패킷 만들기](#)

[튜토리얼 영상 보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교재 문의

전정욱 주간 02-3700-1273, jwjuhn@commbooks.com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11 (성북동1가 35-38)

T.02-7474-001 F.02-736-5047 commbooks.com